공식 미리보기

밴 안의 코끼리

BERND BEST



globaltalents.net

© 2026 Bernd Best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2026년 초판 · 독일어 원작 번역

출판: globaltalents independent publishing

Globaltalents LLC · globaltalents.net

447 Broadway, 2nd Floor, Suite 703

New York, NY 10013,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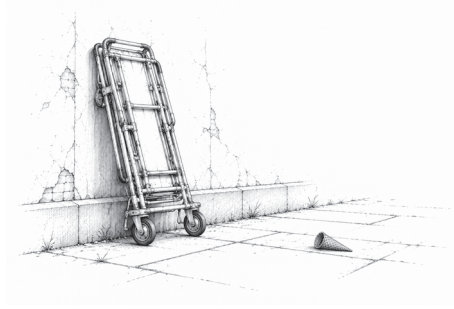
hello@globaltalents.net

일러스트: Gela Kubicki

편집: Hansgeorg Schluck

이 책은 허구의 작품입니다. 등장인물과 줄거리는 저자의 창작이며, 소설의 핵심 물질 역시 허구입니다.

주문형 인쇄 제작: Bookvault



부 일
붙잡음

레버케제가 상하겠네.

이리나

장 1
일요일, 11:23



과체중인 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일요일, 11:23이었다. 어머니는 179킬로그램의 몸을 밀어 쇼핑센터에서 아파트까지 팔십 미터를 되돌아가는 중이었다. 벌써 한참이 걸렸다.

밖은 겨울이었다. 마당의 앙상한 나무에는 밤새 언 얼음이 아직 매달려 있었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유리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진짜 아이스크림을, 와플콘에 담아서.

두 스쿱. 스트라차텔라와 새로 나온 탄 캐러멜 맛. 두 번째 스쿱은 계산대 뒤의 아가씨가 값을 받지 않았다. 이리나가 가격을 두고 하도 오래 투덜댄 끝에, 한마디라도 더 듣느니 그냥 주는 편을 택한 것이다. 거기에 생크림까지. 이리나에게 생크림 없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머릿속은 벌써 다음으로 가 있었다. 냉장고에 남은 레버케제. 손에 들고 차갑게 먹을 참이었다. 그 옆의 따 놓은 팩 와인. 저녁이면 비어 있을 것이었다. 어느 팩이나 저녁이면 비었다.

아침으로는 어제 팩에 남은 와인을 마셨다. 두 잔, 어쩌면 세 잔. 팔십 미터쯤 걸어가는 것이 괜찮은 생각처럼 느껴질 만큼. 이리나는 더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취해 있었다. 늘 취

해 있었으므로. 느리고 상냥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뒤따라왔다. 그 위의 머리는 부엌에서 다시 염색한 것이었다. 자연에는 없는 당근색이었다. 뿌리에는 몇 주째 다른 부분보다 옅은 띠가 나 있었다.

흰색 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딸의 선물이었다. 직접 준 것은 아니었지만, 안에 탄 마스크 쓴 남자 셋, 운전대를 잡은 남자, 숫자 둘을 보는 의사, 간호사, 중량 환자용 들것까지, 그 팀 전부를 제냐가 고용했다. 엄마가 살을 빼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안전띠를 맨 채, 이리나를 받아 몇 달 동안 깊은 진정 수면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리나는 마른 노루와 Iron Woman과 팔십 년대 말 마지막 슈퍼모델을 섞은 모습으로 깨어날 예정이었다. 적어도 계획은 그랬다.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는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딱 한 가지는 남았다. 처음에는 발이 걸려 넘어진 줄 알았다는 것. 바닥이 다가왔고, 이리나는 짜증이 났다. 그 몸무게로 다시 일어서는 일은 큰 작업이었고, 구경꾼이 붙는 행사였다.

그러고 나서 손들이 왔다. 거칠지 않았다. 그 점이 섬뜩했다. 이삿짐 인부가 비싼 피아노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몸을 잡았다. 청구서가 걸린 일이었다. 네 군데를 잡았다. 왼쪽,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무릎 아래. 세상이 수평으로 기울었다. 위로 보이는 하늘은 겨울 일요일의 밋밋하고 우윳빛 도는 회색이었다. 아무도 커튼을 젖히지 않는 날의 하늘이었다.

버스 정류장의 여자 둘은 일요일 이 시각 이 거리에서 볼 법한 것을 보았다. 흰 차, 들것, 마스크와 장갑을 낀 남자들, 집에 가다 쓰러진 뚱뚱한 여자. 두 사람이 본 것은 응급 상황이었다.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말했다. 저 여자는 한동안 걷는 게 영 시원찮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입에서 나온 것은 분에 찬 신음이었다. 계산대에서 자기 차례를 빼앗긴 사람의 소리였다. 형체 하나가 무슨 말을 했다. 차분하게, 거의 정중하게. 하지만 이리나의 언어가 아니었고,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였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해서 더 나빴다. 말할 줄 모르는 언어로는 아무것도 부탁할 수 없다.

그러고는 팔 안쪽에 주삿바늘의 차가운 입맞춤이 느껴졌다. 분노가 따뜻한 물에 넣은 설탕처럼 녹았다.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떠오른 생각은 터무니없었다. 떠오르는 동안에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리나는 생각했다. 레버케제가 상하겠네.

밴에 탄 사람들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그 집에서 누구에게나 경비원으로만 불렸다. 달리 부를 말이 없어서는 아니었다. 그가 허용한 가장 정확한 호칭이었다. 그는 빈 차를 몰듯 운전했다.

뒤쪽, 들것과 휠하우스 사이에는 의사가 앉아 작은 기기의 숫자 둘을 보고 있었다. 산소포화도와 맥박. 세상에 남은 마지막 두 숫자인 것처럼. 이 여자를 살려 두는 것은 그의 두 손이었다. 차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간호사가 있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는 엄지로 입가에 남은 생크림을 닦아 주었다. 의사는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느 절차서에도 없는 일이었다.

벤치에 앉은 마스크 쓴 남자 셋은 누구로든 대체할 수 있었고, 자신들도 알았다. 근육, 침묵, 장갑. 마스크는 약국에서 파는 파란색 고무줄 마스크였다. 어느 봄 이후로는 남자 셋이 그것을 쓰고 있어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한 사람이 낮은 소리로 기도했지만 누구에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가는 길

지도대로라면 아파트에서 숲까지는 세 시간 이십 분이었다. 네 시간이 걸렸다. 경비원이 휴게소에 두 번 세웠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너무 천천히 가는 흰색 밴은 몇 시간이고 멈추지 않는 밴보다 덜 눈에 띄었다.

안에서는 소독약과 식은 커피 냄새가 났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리나의 냄새도 짙어졌다. 몇 년째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많

은 무게를 짊어진, 씻지 않은 몸의 달큰한 냄새. 모공으로 배어 나오는 오전의 와인 냄새. 의사는 들것이 차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맡았고, 첫 사흘을 위한 계산에서 숫자 하나를 바꿨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난방은 이 단으로 켜져 있었다. 간호사가 보온포를 덮어 주었다. 금색 면이 안으로 가게. 차가 요철을 넘을 때마다 포일이 조용히 바스락거렸다. 오랫동안 차 안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

백십이 킬로미터 지점에서 이리나의 숨이 멎었다.

길지는 않았다. 십일 초 뒤에 숨이 돌아왔다. 바람에 문이 쾅 닫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의사는 숫자를 보고, 시계를 보고, 다시 숫자를 보았다. 예상한 일이었다. 기록에 있었다. 두 나라의 기록에 모두 있었고, 아무도 조처한 적이 없었다. 이 여자는 몇 년째 밤마다 여러 차례 숨을 멈췄고, 그래도 아침마다 눈을 떴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의학적 근거였으며, 충분한 근거였다. 그 점이 편리했다.

가는 동안 네 번 더 그랬다. 의사는 매번 초를 적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들판으로, 들판이 구릉으로, 구릉이 숲으로 바뀌었다. 숲은 점점 짙고 어두워졌다. 끝내 나무 꼭대기들이 촛불 위에 모은 손처럼 도로 위를 덮었다.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다. 숲은 누군가 꺼 놓고 다시 켜기를 잊은 것 같았다.

이리나를 기다리는 것

아무도 이리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계산은 그랬고, 맞아떨어졌다.

기다리는 반려동물은 없었다. 이리나 곁에서 동물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딸의 고양이는 어느 아침 문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보지 못했다. 제대로 찾지도 않았다. 아이의 햄스터는 청소기를 돌리다 빨아들였다. 햄스터는 우리 밖에 나와 있었고, 이리나는 청소기를 끄는 것조차 귀찮았다.

기다리는 것은 뒷말이었다. 나이는 두 배이고 겉보기 나이는 절반인 이웃 여자는 사흘 뒤 맞은편 뚱뚱한 여자가 더는 쇼핑센터로 뒤뚱거리며 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었다. 일주일 뒤에는 다른 여자가 말할 것이었다. 틀림없이 또 다른 나라에 갔겠

지. 치매 걸린 엄마한테. 집 때문에. 뻔하지. 이 주 뒤에는 아무도 묻지 않을 것이었다.

일자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봄부터 연금이 나왔다. 이십 년 동안 진단서를 낸 끝에 허가받았다. 집세를 내기에도, 와인을 사기에도 충분했지만 둘 다 하기에는 모자랐다. 부족한 돈은 뜨개질로 벌었다. 솜씨는 좋았다. 관청 모르게 현금을 받았고, 실값과 들인 시간의 극히 일부를 건지는 가격이었다. 나머지는 딸이 메웠다. 딸에게는 몇 주에 한 번씩 새벽 두 시에 숫자 하나가 적힌 메시지가 왔다.

딸은 묻지 않을 것이었다. 딸은 이 시각 다른 나라의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째 앉아 있는 자리였다.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킬로미터 단위로 정확히 알았다.

빈 병을 줍는 남자가 가장 오래 살필 것이었다. 이리나에게 남은 마지막 친구였다. 벤치 주변에서, 여름에는 호숫가에서, 육 년 동안 함께 병을 주웠다. 남자는 상자를 들고, 이리나는 눈으로 찾았다. 무엇을 주고도 청구서를 내밀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병을 팔아 받은 돈, 동전으로, 매번 전부. 더는 물이 새지 않는 수도꼭지와 다시 닫히는 문. 그 일요일에 남자는 마당의 수거함 옆에 서 있었다. 진입로 너머로 팔십 미터 길이 보이는 자리였다. 흰 차도, 들것도, 네 군데를 잡는 손도 보았다. 이십 년 동안 이 마당에서 구급차를 세 번 보았고, 그 사람들은 몸을 다르게 잡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빈 병을 줍는 남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직업이다.